

제1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1)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0장 1-20절

찬송: 401장(통457장), 399장

간직할 말씀 :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신 20:1).

주제 :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집트를 탈출한지 40년이 경과한 주전 1406년 구약성경의 월력으로 11번째 달(Shevat, 1:3) 곧 태양력으로 1-2월경에 모세가 광야세대인 신세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집트탈출 세대인 구세대가 받았던 시내산 언약을 요약(복사, 17:18)하여 광야세대인 신세대들에게 들려주신 계명입니다. 구세대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사막)에서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Ha-Tikvah)을 품었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세대였다면, 신세대는 광야(사막)에서 태어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땅을 정복할 세대였습니다. 노예세대였던 구세대는 첫 유월절(춘분이 지난 보름날) 날 이집트를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을 통해서 짧게는 430년 길게는 6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를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세우고 그 헌법으로 율법을 부여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영토는 희망 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그것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율법을 부여받은 신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로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아야할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땅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넌 때는 새해 첫 달인 니산월 곧 태양력으로 3-4월경이었습니다(수 3:15, 4:19). 신명기 20장은 이 신세대 히브리인 용사들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지켜야할 계명들입니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5개가 20장에 담겼는데, 모두 전쟁에 관한 것으로써 “~하라”는 계명이 3개(2, 10, 17절), “~하지 말라”는 계명이 2개(16, 19-20절)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두려워하지 말라”(30:1-9).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싸움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신다

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메시지는 이 세상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쟁터란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월계관을 받아쓸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 이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적군에게 두려움을 품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그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2.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20:10-18).

하나님이 싸움터에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굴욕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롬(화평)을 선언합니다. 만일 적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하나님의 살롬을 수용한다면, 적군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멸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계명들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고대전쟁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민족들 간의 전쟁은 수호신(守護神)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전쟁은 참신 야훼와 거짓 신들의 전쟁이었으므로 패배한 거짓 신들과 그 숭배자들은 멸절되어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노예와 떠돌이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복원하는 힘이 이교도들과 우상들을 멀리하는데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화평선언의 근간(根幹)은 두려움이 없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간디의 후계자 네루는 인도인에게 간디가 남긴 최대의 선물은 공포심(아바야)을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침착하고 결의에 찬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을 갖고서는 진리도 자유도 그 밖의 고귀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공포심을 버리자 인도 민중에게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타락시킨 외국지배에 그토록 오랫동안 굴종해온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굴종하지 않겠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인도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다음의 증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줄지어 걷던 간디의 사람들은 철조망에서 90여 미터(100야드)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선택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철조망 가까이 다가섰다. 갑자기 20여 명의 원주민 경찰들이 정지선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달려들며 강철을 입힌 곤봉으로 마구 머리를 쳐댔다. 그러나 시위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곤봉을 막으려고 팔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볼링 핀처럼 무너졌다.... 얻어맞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이한 자세로 쓰러져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 두개골이 깨진 사람, 부서진 어깨의 고통 때문에 몸을 비튼 채 쓰러진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열을 이탈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며 얻어맞고 쓰러질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 모두가 몇 분 후면 얻어맞아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망설임이나 두려움의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당당하게 든 채 휘청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루이 피셔의 <마하트마 간디의 삶>, 1952]

3. “찍어내지 말라”(20:19-20).

싸움은 화평을 얻고 야훼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화평과 야훼신앙유지가 목적이려면 싸움은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9-20절은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그 성읍이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과일나무들을 도끼로 마구 찍어서 필요한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데 써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들은 살려서 양식이 될 수 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돌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단이 정당해야 합니다. 먹고 먹히는 싸움에서조차도 수단이 정당해야 합니다.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거둔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공리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및 진화론자들은 성공과 결과만이 선이고 정의라 믿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악한데 거둔 성공이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인들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뒀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적군과의 싸움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적군과의 싸움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신적 요소(要素)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2.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3.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제2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2)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1장 1-23절

찬송: 216장(통356장), 212장(통347장)

간직할 말씀 :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신 21:9).

주제 : 정직한 일을 행하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 20장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할 때 지킬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21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필요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할라카’(Halakhah)라 부릅니다. 할라카에는 모세가 전한 성문 토라(구약성경)와 구전 토라(탈무드)가 있습니다. 토라(Torah)는 ‘가르침’이란 뜻이고 탈무드(Talmud)는 ‘공부’란 뜻입니다. 토라는 주로 모세오경(율법서)을 지칭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규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율법서)을 말하기도 하고 성문 토라를 말하기도 하며 법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규례는 구전 토라 또는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 계명 이외의 법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전 토라의 최종 형태가 탈무드입니다. 참고로 탈무드는 미슈나(Mishnah), 게마라(Gemara) 및 중세기 랍비들의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슈나는 모세 때부터 AD 200년경까지 거의 1600년간 구전으로 전해져오던 것을 예후다(유다) 하나시(Yehudah Ha-Nasi, AD 217년 사망)가 구전 토라를 수집하여 여섯 가지 주제들 곧 농사법, 안식일과 절기법, 결혼과 이혼법, 형법, 희생제물법, 정결법으로 나눠 기록하였는데, 이 기록이 ‘미슈나’(Mishnah)입니다. 그리고 AD 200-500년 사이에 미슈나에 아람어 주석이 달기기 시작하였는데 이 주석이 ‘게마라’(Gemara)입니다. 그리고 11-13세기에 랍비들이 또 주석을 첨가하여 마침내 이뤄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미슈나 또는 탈무드에는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Mitzvot)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방어막역할을 하는 장로들의 유전 곧 율타리법들(Gezairoth)과 관습법들(takkanah와 minhag)이 포함되는데, 잘 알려진 것들로는 ‘안식일법,’ ‘식사 전 손 씻기법,’ ‘음식법,’ ‘그릇 씻기법’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신 21:1-9).

신명기 21장 1-9절은 살해당한 자는 있는데 살인자를 알지 못할 때를 위한 계명입니다. 9절에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고 했는데,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하고 옳은 일이란 것입니다.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Pistis)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하여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의 약속 곧 율법에 충실(Emunah)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설사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흩어지더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세게 믿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왜 모세가 이집트탈출세대에게 전했던 율법을 신명기에서 보듯이 광야세대의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전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1446년경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시작된 율법의 전수는 세대를 거쳐 대대손손 후대에 반복되어야 할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들을 지켜야 할 임무전달식을 유대인 남성이 13세에 이르면 성인식을 통해서 치러왔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에게도 12세 때에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미크라(Mikra, 성문 토라)를, 열 살부터 미슈나(Mishnah, 구전 토라)를 배웠고, 열세 살부터 계명들(mitzvot)을 지켰으며, 열다섯 살부터 탈무드(Talmud)를 배웠습니다.

2. “그를 욕보였은즉 중으로 여기지 말지니라”(신 21:10-14).

신명기 21장 10-14절은 여성전쟁포로를 아내로 삼고자하는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예우하고, 돈을 받고 팔지 말며,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예우란 이방여인의 부정(不淨)함을 정(淨)함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세속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淨, kosher)한 것과 부정(不淨, treyf)한 것 그리고 거룩한(聖, kadosh) 것으로 나누는데, 옳은 행동이란 율법이 정한 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한 것들을 가까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서(모세오경)에 근거한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계명으로써 남성 신체의 하나하나의 뼈와 기관의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써 태양력으로 일 년 365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언급된 죄와 허물에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 1-4계명과 “~을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이요, 허물은 이웃에게 대한 십계명 5-10계명과 “~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바쳤습니다. 또 유대교에 성전제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이들 613개의 계명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밖에서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은 77개의 “~을 하라” 계명들과 194개의 “~을 하지

말라”는 계명들뿐이라고 합니다.

3.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신 21:15-21).

신명기 21장 15-21절에는 미움을 받는 부인의 아들이 장자일 때 그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패역한 아들은 장로들(율법판사)의 판결에 따라 돌로 치라는 계명과 나무에 매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로 장시지내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계명들이 9개가 나옵니다. “~을 하라”가 4개, “~을 하지 말라”가 5개입니다. 형벌과 배상에 관한 계명이 5개, 전쟁에 관한 계명이 3개, 음식법에 관한 계명이 1개입니다. 4절과 22-23절은 형벌과 배상에 관한 계명으로써 규정된 방식으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암송아지의 목이 부러진 거친 골짜기에 밭을 갈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형벌을 받은 자의 시체를 매달라;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처형 당일에 매장하라가 그것들입니다. 10-14절은 전쟁에 관한 계명으로써 토라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을 예우하고, 그 여인을 팔지 말며, 그 여인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음식법에 관한 계명으로써 대식가나 술고래처럼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 9개의 계명들 이외에도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법이 15-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나 장자를 우대하는 상속법 같은 것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문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집트탈출세대에게 전했던 율법을 광야세대의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전한 것을 원형삼아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가문전도임무를 수행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대를 거쳐 대대손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권보호의 중요성입니다. 10-14절을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방여성을 아내로 삼을 때에는 노예로 여기지 말고 아내로서 정중하게 대우하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할 기간을 줄뿐만 아니라 과혼하고자할 때에는 노예로 팔지 말고 자유를 주어 마음대로 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상속의 권리를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받는 부인의 자식이라고 편애하지 말고, 미움을 받는 부인의 자식이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부모를 거역하고 방탕하며 패역한 자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이 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하였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더라도 부패가 이뤄지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이집트탈출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했던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새 시대를 맞이한 광야세대에게 또 다시 율법을 전수한 것과 유대교인들이 매일 3차례 기도회, 안식일 예배, 할례의식, 성인의식, 각종 절기축제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전도에 힘쓰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할 점들을 이야기해봅시다.
2. 유대교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설사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흩어지더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세게 믿는(Emunah)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참고로 그리스도교는 구약성경을 유대인처럼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제3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3)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2장 1-30절

찬송: 295장(통417장), 294장(통416장)

간직할 말씀 :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신 22:12).

주제 : 악을 제거하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 22장은 21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성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와 21, 22, 24절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너희가 입는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라.”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에는 계명들이 24개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라”가 10개, “~하지 말라”가 14개입니다. 참고로 613개의 계명들은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말씀 사랑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참으로 가상(嘉尙)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훼가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노예와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나라와 영토를 주셨고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613개의 계명들을 주셨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브라함이후 4천년 역사 가운데 무려 3천년 가량을 나라 없이 노예생활 또는 떠돌이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설사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흩어지더라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언약의 말씀들 곧 계명들을 100퍼센트 문자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재림모세(제2모세, 신 18:15)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 또는 죄악세상의 떠돌이였던 그리스도인들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복음 곧 언약의 말씀으로 신약성경과 신약성경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모세오경)과 선지자(예언서들)의 강령(본 뜻, 정신, 골자)이다”(마 22:35-40)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겹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신 22:1-12).

신명기 22장 1-12절에만 15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들이 5개,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10개입니다. 여기서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겔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는 민수기 15장 37-41절에 연결됩니다. 옷술을 ‘찌찌트’(Tzitzit)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나 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매년 한 차례씩 모세오경(토라)를 완독합니다.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 기도회 때 회당에서 읽습니다. 완독을 마치는 날은 초막절 축제를 마친 다음날입니다. 2023년은 그날이 10월 7일 해질 때부터 8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음력 8월 15일) 보름날에 시작해서 8일간 축제를 갖는데 그 8일째 날 곧 ‘토라 속에서의 기쁨’(Simchat Torah)을 누리는 날에 토라읽기를 마친 기념으로 토라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당을 돌며 음식을 먹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밖에도 유대교인들의 말씀사랑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쉐마’(Shema, 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tefillin)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매답니다. ‘메주자’(mezuzah)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만들어 집 안 문설주 옆에 부착해 놓고 출입할 때마다 세 번씩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춥니다. 회당에서 토라행진 때에 토라에 입을 맞춥니다. 토라계명을 우발적으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법, 손씻기법, 그릇씻기법, 음식법 등 수많은 율타리법들(gezairoth)을 엄격히 지킵니다.

이토록 대단한 유대교인들일지라도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려 342개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영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2장 35-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모세오경)과 선지자(예언서들)의 강령(본 뜻, 정신, 골자)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물리적인 제한에 상관없이 온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실천이 목적이어야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목적 그 자체일 때는 조건 없이 베푸는 선물의 성격이 되지만, 뭔가를 바라거나 이익의 수단으로써 사랑과 섬김이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뇌물의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따라붙지 않는 사랑과 섬김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2.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신 22:13-22).

신명기 22장에 담긴 24개의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자연보호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악으로 간주하여 제거하라고 세 차례나 명령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분실물(짐승이든 의복이든)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못 본 체하지 않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1-3절). 셋째와 넷째, 짐을 실은 짐승(나귀든 소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짐을 다시 실어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4절). 다섯째와 여섯째, 사회에 주어진 성별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걸모습으로 꾸미는 행위자들 곧 드래킹(drag king)과 드래퀸(drag queen)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5절)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사회적 통념을 거슬리는 행위를 하나님사랑 혹은 이웃사랑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와 여덟째는 자연보호에 해당됩니다. 어미와 새끼 또는 어미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를 놓아주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6-7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홉째와 열째는 이웃사랑에 해당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8절)고 하였습니다. 열한째와 열둘째는 토양보호 및 포도원보호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9절을 포도원에 곡식이나 채소를 심지 말 것과 포도원에 뿌려진 다양한 씨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열셋째는 짐승보호 또는 일의 효율성에 해당됩니다. 소와 나귀처럼 종이 다른 짐승을 거리하여 밭을 갈지 말라(10절)고 하였습니다. 열한째는 울(양털)과 베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11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랍비 예수(Jesus)는 울과 베실의 혼합이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에 쓰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들의 복식(服飾)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열넷째는 옷술 곧 ‘찌찌트’(Tzitzit)를 달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계명입니다.

3.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신 22:23-30).

열다섯째와 열여섯째는 19절로써 여성보호에 해당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순결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비난함으로써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일곱째는 21절로써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을 때는 돌로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계명입니다. 열여덟째는 22절로써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열아홉째는 23-24절로써 간통한 남녀를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레 18:20). 스물째는 25절로써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스물한째는 26절로써 들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물둘째와 스물셋째는 29절로써 미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혼여성을 강간한 남자는 그녀와 결혼하여 아내로 삼아야하며 평생토록 그녀를 버릴 수 없다는 계명입니다.

스물넷째는 30절로써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레 18:8). 일부다처가 가능했던 때였으므로 모친이 아닌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간통이나 강간한 자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람을 돌로 쳐서 공개처형한다면 그것은 아마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고 하였고,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롬 13:10)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벧전 4:8)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유대교인들의 말씀사랑과 율법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가상(嘉尙)합니다. 매년 한 차례씩 모세오경(Torah)을 완독할 뿐 아니라, 셰마(Shema)와 셰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를 비롯해서 일상의 계명을 이행하거나 특별한 때를 포함하여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기도문(berakhot)을 낭송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셰마’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트필린’을 손이나 이마에 매달고 다니며 집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세 번씩 메주자에 입을 맞춥니다. 이토록 대단한 유대교인일지라도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려 342개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100퍼센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성취시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모세오경)과 선지자(예언서들)의 강령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물리적인 제한에 상관없이 온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의 복음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구약성경의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유대교인들이 613개의 계명들을 온전히 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봅시다.
2. 그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봅시다.

제4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4)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3장 1-25절

찬송: 420장(통212장), 421장(통210장)

간직할 말씀 :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신 23:14).

주제 :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말씀 앞에서

토라를 깊이 사랑하고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유대인들일지라도 토라에 담긴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무려 342개를 물리적으로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토라계명들을 우발적으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법, 손씻기법, 그릇씻기법, 음식법 등 수많은 율타리법들(gezairoth)까지 만들어 매우 엄격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토라(모세오경)를 성경 중의 성경으로 인식하고 매년 한 차례씩 완독하며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비롯하여 각종 절기축일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명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에는 “우리는 노예들이었네”와 “우리는 떠돌이들이었네”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라는 노래 ‘아바딤 하이누’(Avadim hayinu)를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들이었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노예들이었네”라고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민족해방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야기는 해마다 공유되며 대대손손 공명(共鳴)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Telling our own story is so powerful.)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노예와 떠돌이로 살았지만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은 힘은 바로 출애굽기와 바벨론유배후의 사건들을 전해주는 성경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의 이야기는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세오경을 완독하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벨론유배에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토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방인들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온 세대가 고토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900여 년 전 이집트탈출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뒤지지 않았습다. 마찬가지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떠돌이와 노예들이었던 조상들이 극한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모세오경의 영웅적 광야시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 대대로 떠돌이 광야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희망’(Ha-Tikvah) 자체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 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시는 영웅적 이야기는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희망’ 자체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명기 23:1-8).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회”는 이스라엘이란 “의인의 회중”(시 1:5)을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부계혈통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성경시대의 여성들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계혈통만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후 언젠가부터 부계혈통보다 모계혈통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유대교에 개종하여 할례 받고 침례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 하였고, 그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종의 자녀” 곧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모계혈통을 부계혈통보다 더 중요시하게 된 실마리를 사라와 이삭 모자(母子)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母子)에게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반면에 이집트 여인이었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음에도 유업을 잇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상 예루살렘을 하갈에, 하늘 예루살렘을 사라에 비유한 바울은 본향인 하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본향인 지상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음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티크바’(Ha-Tikvah, 그 희망)를 애국가로 부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 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의 ‘그 희망’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땅과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던 ‘그 희망’을 마음 속 깊이 갈망하는 자라야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나 유대교개종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총회 또는 의인의 회중에 들기가 만만치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

습니다. 터키의 고대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의 회당건립 기념비에는 유대인 가장(家長) 69명, 이방인 절반개종자 가장 54명, 이방인 완전개종자 가장 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회당구성원 전체 이름에서 이방인이 차지한 비율이 45퍼센트나 되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으로 받아드려진 이방인은 세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총회(회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민족종교인 유대교와 세계종교인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입니다.

2.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신 23:9-14).

신명기 23장에는 모두 20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1-8절에는 여섯 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이 계명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시(“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못한다(1절). 둘째, 사생자(mamzer: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못한다(2절). 셋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딸과 영원히 결혼하지 못한다(3절). 넷째,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시해야하지만(신 20:10),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게는 화평을 제시하지 말라(6절). 다섯째와 여섯째, 에돔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삼대동안 이스라엘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7-8절). 8절 “그들의 삼대(三代) 후 자손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개역 및 개정성경>를 유대인들은 “삼대동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로 이해합니다. 우리말 성경 <표준새번역>과 <바른성경>도 “삼대 후”로 번역하지 않고 “삼대(三代) 자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4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야영할 경우 진중에서 지켜야 할 세 개의 계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조건이 되게 하려면 모든 악한 일을 삼가고 진영을 거룩히 유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밤에 있었던 일로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해질 때까지 있다가 해가 지면 목욕하고 들어오라는 것이고(10-11절), 둘째와 셋째는 배설장소를 진영밖에 만들고(12절), 그곳을 청결히 유지하라(13절)는 계명입니다. 14절은 진영을 거룩히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13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와 같은 맥락으

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 23:15-25).

또 15-25절에는 11개의 계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15-16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땅으로 도피한 (히브리인) 노예를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이방인)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는 계명과 그러한 종을 억압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7-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에서 창기와 남창은 이방신전에서 몸을 팔던 사제들 곧 성창(聖娼)들을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나안은 농경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바알종교가 성행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신(神)은 엘(El)이었고, 엘의 자녀들이 바알, 이스다롯, 아낫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다롯과 아낫은 바알의 여동생들이자 부인들이었습니다. 풍요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좌우되던 시절이었는데 다가가 강수량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겨울에 집중되었으므로 성전제사는 일종의 기우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를 정액으로, 하늘을 남성으로, 땅을 여성으로 생각했던 당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서 벌어지는 예배드리는 자들과 남녀사제들 간의 성행위가 바알과 이스다롯을 자극하여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여창(女娼)이나 남창(男娼)을 없게 하라는 17절의 계명은 우상숭배를 근절하라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혼전순결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18절의 계명은 여자든 남자든 몸을 팔아 번돈을 혹은 포주(抱主) 짓으로 번돈을 하나님의 전(殿)에 바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개 같은 자”는 동성애자(gay)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19절의 계명은 히브리인끼리 이자놀이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자를 주고 빌리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의 계명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놀이를 해도 좋다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13세기경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방랑하는 유대인’(Wandering Jew)이라 불렸고, 그것을 숙명으로 여겼습니다(호 9:17). 그렇게 국적도 시민권도 없이 외국에서 떠돌던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번돈으로 이자놀이를 했고, 그것이 금융업으로 발전되었으며, 금융업계의 큰 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금융의 힘은 이스라엘 건국(建國)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1-25절에는 네 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는 서원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입으로 말한 것 곧 서원한 것은 언약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는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갈 때 포도나 곡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챙겨갈 수는 없다는 계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과 곡식밭에 아무나 들어가 따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보지 않고 품꾼들이 들어가 일할 때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가나안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희망’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가진 이후 오늘날까지 대략 4천년 역사 중에 대략 3천년을 노예와 떠돌이로 살아야했던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땅에 1948년 5월 14일 기필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바벨론유배 이후의 이야기들이 적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성경은 패망한 유대인들에게 재림모세(제2모세, 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대한 ‘그 희망’(Ha-Tikvah)을 끊임없이 심어주었고,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유대민족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토라를 곧 율법과 규례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지령이) 같은 야곱(유대인들)”(사 41:14)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시 40:2). 이것이 모세가 광야세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 계명들에서 나온 힘일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드리기에 힘써야할 이유를 말해봅시다.
2. 숭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주전 586년 유다왕국멸망이후 상실했던 주권을 2534년 만에 회복하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를 1878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고토에 재건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제5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5)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4장 1-22절

찬송: 218장(통369장), 220장(통278장)

간직할 말씀 :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 24:18).

주제 :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 24장은 18개의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약자인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노동자들, 객이나 고아들 편에 선 계명들입니다. 이들 18개의 계명들은 1절에 언급된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연결시킬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첫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혼한 부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에게서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이 발견된다면, 신랑이신 하나님은 정녕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언급된 18개의 계명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라는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약혼식(kiddushin)과 결혼식(nissuin)을 통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부나 부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어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이며, 셋째는 이혼한 신부나 부인이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녀와 재혼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넷째는 갓 결혼한 남편은 일 년간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갓 결혼한 남자는 일 년간 병역이나 공공노동에 차출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섯째는 맷돌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전당잡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일곱째는 동족을 노예로 삼거나 팔면 사형에 처하라는 계명입니다(레 25:42). 여덟째는 조심하여 나병을 관리하되 율법대로 하라는 계명입니다. 아홉째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담보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열째는 채무자가 가난한 자이면 담보물을 하루가 넘도록 취하지 말라는 것이며, 열한째는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해질 때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계명입니다. 열둘째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의 품삯은 당일로 지급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열셋째는 부모자식 간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법원이 사형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열넷째는 나그네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열다섯째는 과부한테는 전당 잡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열여섯째는 잇고 밭에서 가져오지 않은 단을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과수원의 과일에도 적용됩니다. 열일곱째는 잇고 밭에서 가져오지 않은 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계

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여덟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불완전한 송이들을 남겨두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버림당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신 24:1-4).

신명기 24장 1-4절은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세 개의 계명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키두신’(kiddushin)이라고 하는데 약혼이란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거가 불가능하지만 완전한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깨려면 이혼(get, 유대인 이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니수인’(nissuin)이라고 하는데 결혼이란 뜻입니다. 이 단계가 완성돼야 부부는 합방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혼인에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는 금전거래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돈이나 결혼반지와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줍니다. 둘째는 결혼문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진술한 문서를 줍니다. 약혼식은 두 명의 합당한(kosher, 유대교 성결법) 증인들이 입회해야 성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합방함으로써 결혼식이 완결됩니다. 고대에는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일 년 정도의 간격을 두었는데, 이 기간에 신랑은 토라연구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랍비 나프탈리 실버버그(Naftali Silberberg)는 남녀가 치르는 두 단계의 혼인을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식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혼식(키두신)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berith, 결속, 맹세, 헌신)의 말씀 곧 토라와 그 계명을 약혼반지(ring, 고리)에 비교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같은 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나 결혼식 때까지는 아직 연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토라를 연구하거나 신성한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완벽하고 가능한 일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한 첫 오순절부터 모쉬아크(Moshiach, 재림 모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하나의 긴 약혼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유대교인들에게 헌신하고 계시지만 모쉬아크 시대가 열리기전까지는 여전히 약혼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쉬아크가 오고 계시고 그가 오시면 ‘니수인’(결혼)의 시대를 열게 될 터인데, 그 때(안식시대)에는 하나님과 유대교인들의 관계가 가시적이고 완전히 향유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침례를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곧 약혼식으로 볼 수 있고(롬 6:1-5), 집단적으로는 교회가 출범한 주후 30년 5월 말 오순절 날이 그리스도와 약혼식에 해당될 수 있고, 긴 약혼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 19:7, 9).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증서를 주도록 한 것은 가부장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한테서 버림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간음으로 인한 것일 때는 여성이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혼녀가 이혼증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그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혼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도록 한 것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열거된 곳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혼법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아직도 근동의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3400여 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당하는 여성들이 다반사였을 당시에 이혼증서를 주라는 모세의 율법은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악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2.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신 24:5-15).

신명기 24장 5-15절에는 아홉 개의 계명이 담겨있습니다. 대부분이 곤궁하고 빈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계명들입니다. 갓 결혼한 남편은 일 년간 가사와 아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고, 생필품을 전당잡지 말며, 동족을 노예로 삼거나 팔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또 나병환자, 채무자, 가난한 자, 품꾼 같은 사회의 약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인 만큼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게 처우하라는 계명들입니다. 특히 14-15절은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삷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8-12절은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삷을 주라 하니,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 주인을 원망한 사람들은 신명기 24장의 가진 자와 능력자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24장의 계명들은 이 능력자들에게 약자들을 측은히 여기신 하나님을 닮으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은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니수인’(결혼) 시대, 참 안식 시대, 모쉬아크(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력시장에 나가 품꾼을 구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오전 6시와 9시, 정오, 오후 3시와 5시에도 일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특징은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구하기를 종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품꾼들이 일감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은 측은지심 때문에, 품꾼들은 절박함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눈물겹고 고된 일인가를 압니다. 일이 없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별이가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개개인의 능력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아서 새벽부터 뿔뿔히 일한 사람을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서 오후 5시까지 서성이던 사람이 앞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일감을 찾아 일력시장에 나가 종일 서성이었을 가련한 품꾼에 대입해 볼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을 닮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은지심(이웃 사랑)이 다름 아닌 이 모든 계명들의 본뜻입니다.

3.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신 24:16-22).

그리고 신명기 24장 16-22절에는 여섯 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죄에 대해 피차 연대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 나그네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 과부한테는 전당 잡지 말라는 것, 잇고 밭에서 가져오지 않은 단이나 (불완전한) 과일을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 잇고 밭에서 가져오지 않은 단이나 과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불완전한 송이들을 남겨두라는 계명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29-30절은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 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1-32절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

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박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들은 표면적이고 전체적인 시내산 언약공동체에 던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표면적이고 전체적인 율법공동체에서 개인은 그 존재가치가 미미하였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에 부속된 일개의 톱니바퀴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은 군단에 소속한 병사와 같고, 병사 개인의 책임은 군단 전체의 책임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응보는 선한 일은 자손 천대까지 나쁜 일은 자손 삼대까지 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대교인들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부모가 자식의 죄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계명을 범원이 사형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신명기 24장은 18개의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약자인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노동자들, 객이나 고아들 편에 선 계명들입니다. 이들 18개의 계명들은 1절에 언급된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에 연결시킬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첫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혼한 부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에게서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이 발견된다면, 신랑이신 하나님은 정녕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언급된 18개의 계명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일들을 하라는 말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녕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보는 유대교인들의 견해가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보는 입장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사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율법과 규례를 영적으로 참으로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제6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6)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5장 1-19절

찬송: 459장(통514장), 461장(통519장)

간직할 말씀 :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 25:15).

주제 : 온전하고 공정하게 하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 25장에는 12개의 계명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계명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공정, 공평, 공의(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형사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법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령 혹은 본뜻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공의는 사랑과 함께 할 때 가장 공의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공의와 함께 할 때 가장 사랑다워집니다. 가장 순도(純度) 높은 사랑은 가장 순도 높은 공의이며, 이 둘이 합성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가페’(Agape)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도가 높은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이란 순도 높은 공의와 순도 높은 사랑이 절묘하게 합성되어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만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에로스(-1)요.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율법(-1)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면, 그것은 복음(+1)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제물(선물)이 되셨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셨으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가페가 햇빛계시라면, 신명기 25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들은 달빛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신 25:1-4)

신명기 25장 1-4절에는 세 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을 채찍으로 벌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채찍 수를 초과하여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리고 세 번째는 짐승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은 문자적으로 ‘매를 맞아야 할 아들’(bin hakoth)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써 ‘매를 맞아야 할 자’를 말합니다. 1-2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장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매를 맞아야 할 자’는 법률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죄값에 따라 채찍을 맞아야 할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2절의 “태형”은 일차적으로 채찍을 뜻하지만, 매를 꼭 채찍으로만 맞아왔던 것이 아니고,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40대를 넘겨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중죄인에게 최고 39대까지 곧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2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바울시대에 유대인들이 매를 때리던 곳은 공회 곧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세 명의 남성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집사(회당에서 급여를 받는 유일한 고용인)를 시켜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 10:17, 막 5:22, 눅 7:3, 21:12, 행 22:19).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신명기 24장 19-21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뭉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에 연결됩니다. 신명기 24장 19-21절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계명이었듯이, 25장 4절도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짐승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자연에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신명기 25:5-10).

신명기 25장 5-10절에는 수혼(嫂婚, Levirate)에 관한 세 개의 계명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과부는 시형제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과부는 시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맏아들로 하여금 죽은 남편의 이름을 받아 대를 잇게 함으로써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계명이며, 셋째는 수혼이행의무자(goel)인 시형제가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과부는 장로들 앞에서 시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계명입니다. 이 수혼(嫂婚)을 유대인들은 ‘위봄’(yibbum)이라고 부르는데 시형제란 뜻입니다. 또 수혼의무포기식을 유대인들은 ‘하리짜’(chalitzah)라고 부릅니다. 유대인공동체에서는 ‘하리짜’의식을 위해서 가족신을 만들어 보관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위봄’은 시형제에게 수혼을 할지 혹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을 줍니다.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불명예가 주어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죽은 형제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위봄’의 목적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도 아들도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말과 룯의 이야기는 ‘위봄’에 관련된 유명한 사례들입니다. 또 다말과 룯은 예수님의 조상들을 출산한 여성들로서 마태복음 1장에 실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유명 인사들입니다. 수혼이행의무자는 죽은 형제와 아버지가 같아야합니다. 죽은 형제에게 아들이 없어야 합니다. 의무자(goel)는 형수나 제수의 남편이 죽기 이전에 태어난 형제라야 합니다. 의무자나 과부나 모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라야합니다. 죽은 형제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더라도, 의무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고, 한 사람하고만 ‘하리짜’의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위봄’이나 ‘하리짜’의식을 치른 후에는 죽은 형제의 다른 부인들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하리짜’의식을 치르기 전에 다른 남성과 재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과부의 시형제들이 너무 어리면, 그들 가운데 누구든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절해야합니다. 또 만일 의무자가 행방불명이면, 과부는 그를 찾을 때까지 수절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봄’은 젊은 과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법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봄’의 본래 취지는 아들 없는 과부들은 보호하려는데 있었지만,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과부들은 자신의 재혼을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시형제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게다가 과부들은 시형제가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절해야하므로 가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댁이 며느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 <예루살렘포스트>지에는 ‘위봄’ 때문에 13년간 시댁과 힘겨운 법정싸움을 진행했던 42세의 슬로미트 라비(Shlomit Lavi)라는 여성에 대한 유대교 대법원의 판결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대교 대법원은 하급심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법원이 시댁의 편에 서서 10년간이나 그녀에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뒤집은 세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비잔틴시대 이후 유대인들은 대체로 수혼보다는 수혼의무포기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위봄’보다는 ‘하리짜’를 선택하고 있고, 개혁주의와 재건주의 유대인들은 아예 ‘위봄’을 폐지시켜버렸으며, 보수주의 유대인들만 ‘위봄’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위봄’을 피하고 ‘하리짜’를 선택하는 대신에 시형제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이에게 죽은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뜻인 사랑이 없는 율법의 문자적 적용이나 악용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가증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이 복음서들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서로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들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념체계인 복음을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당대의 유대정치종교지도자들의 율법과 규례의 문자적 적용이나 악용을 건강한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것으로 설명합니다.

3.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신 25:11-19).

신명기 25장 11-19절에는 여섯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11-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붙잡히 여기지 말지니라”에서 두 개의 계명을 취합니다. 첫째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을 붙잡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측량과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명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며, 씨를 멸하라(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2절은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에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드리기보다는 매우 엄격히 삼가라는 비유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기 때문에 과연 신명기 25장 12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두 개의 계명 곧 긍정명령인 “쫓는 자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쫓기는 자를 구하라”와 부정명령인 “쫓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 그러나 쫓는 자는 쫓기는 자에게 다가가서 쫓기는 자를 죽이거나 그의 하체를 드러내기 전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해석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라버리는 행위를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로들(율법판사들)이나 행정관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계명의 취지는 여성이 남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할 만큼의 중상을 입히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실제로 손을 베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대가(돈으로, 수감생활로)를 치러야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계명은 피해자의 손해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힌다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곧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출 21:23-25)값는다는 것에 연결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종종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프’(kaph)는 단지 ‘손바닥’이나

오목한 손바닥처럼 속이 비어 진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창 32:25). 그리고 ‘끊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카짜쯔’(qatsats)는 ‘자르다’를 의미하지만 ‘벗기거나 면도하여 제거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왕하 18:16). 이것을 근거로 신명기 25장 12절을 ‘그녀의 손을 자르다’가 아니라 ‘그녀의 사타구니를 밀다’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성이 입은 피해가 중상이라면, 가해자가 입게 될 수치심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창 36:12). 아말렉과 관련된 세 개의 계명들로 볼 때 원한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같은 악연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16절에 실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는 설교시간에 자주 듣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길고도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또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했던 상방의 피해가 매우 컸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48절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피의보수(동해보복)법에 반대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랍인들의 복수의 집념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복수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진 혈연집단을 ‘카므사’라고 부릅니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면 그 카므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추락하여 그 카므사와는 교역도 결혼도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피 보상’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고엘 하담’(goel haddam)이란 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바꿔서 ‘피를 용서로 갚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신명기 25장에는 12개의 계명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계명들은 모두 공정, 공평, 공의(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명들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들의 본뜻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는 사랑과 교차될 때 가장 공의로워집니다. 반대로 사랑은 공의와 교차될 때 가장 사랑다워집니다. 가장 순도(純度) 높은 사랑은 가장 순도 높은 공의이며, 이 둘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사랑이 ‘아가페’(Agape)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도가 높은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이란 순도 높은 공의와 순도 높은 사랑이 절묘하게 합성되어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만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에로스(-1)요.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율법(-1)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면, 그것은 복음(+1)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공의 곧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또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교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규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방식이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대정치종교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의 해석과 적용을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점에서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공의와 사랑은 선로(율법)처럼 평행선을 그을까요, 십자가(복음)처럼 교차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더하기 표식이 되는 이유, 즉 공의와 사랑의 교차가 플러스 요인(살림의 일)으로 작용하는 근원(하나님의 시범)을 말해 봅시다.
2.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특성이 부성(父性)적일까요, 모성(母性)적일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롬 3:24-26).

제7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율법(7)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6장 1-19절

찬송: 210장(통245장), 208장(통246장)

간직할 말씀 :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19).

주제 :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 26장에는 다섯 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성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 앞에 놓으면, 신앙고백을 한 후에 경배하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 계명을 만물을 가져오도록 규정된 부분을 읽으라(1-11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둘째는 ‘셋째 해 십일조’를 드린 후에 여호와 앞에 아뢰라(13-15절)는 것입니다. 셋째는 ‘셋째 해 십일조’(유대교인들은 둘째 십일조라 부름)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외에는 쓰지 말라(12절)는 것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14절 “내가 애굽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에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 구절을 십일조가 정결(kosher)하게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에서조차 부정한(treyf) 상태로 둘째 십일조를 먹지 말라(14절)는 계명과 애도할 때는 둘째 십일조를 먹지 말라(14절)는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세속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결(淨潔, kosher)한 것과 부정(不淨, treyf)한 것 그리고 성결(聖潔, kadosh)한 것으로 나누는데, 의로움이란 율법이 정한 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들을 가까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과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정결한데서 그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여 성결(聖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신 23:14).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소수민족입니다. 큰 나라들의 틈새에 있는 약소국가이고 약소국민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간 강대국들에 짓밟혔고 주권을 빼앗겼으며,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무려 1878년간은 지도상에서 또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였고 떠돌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은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한 것들을 가까이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없이 가엽고 불운했던 이스라엘이 역사의 뒀안길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큰 기적으로 회생(回生)하여 건재(健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신 26:1-11).

신명기 26장 1-11절에는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성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 앞에 놓으면, 신앙고백을 한 후에 경배하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한 개의 계명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 계명을 만물을 가져오도록 규정된 부분을 읽으라(1-11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5-9절에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에는 유대민족의식과 야훼 하나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의식은 ‘우리는 떠돌이였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노예들이였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야훼 하나님 인식은 ‘조상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며,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 식사 때에 ‘아바딤 하이누’ 곧 “우리는 노예들이였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수치스런 과거사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이집트인들의 노예였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승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대대손손 이어갈 가문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진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나라가 없던 떠돌이요,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유배생활과 노예상태를 벗지 못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어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민족의 뿌리가 있고, 정신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행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하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여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운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신 26:12-15).

신명기 26장 12-15절에는 4개의 계명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는 ‘셋째 해 십일조’를 드

린 후에 여호와 앞에 아뢰라(13-15절)는 것입니다. 둘째는 ‘셋째 해 십일조’(유대교인들은 둘째 십일조라 부름)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외에는 쓰지 말라(12절)는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에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 구절을 십일조가 정결(kosher)하게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에서조차 부정한(treyf) 상태로 둘째 십일조를 먹지 말라(14절)는 계명과 애도할 때는 둘째 십일조를 먹지 말라(14절)는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신명기에서의 십일조는 바치는 시기와 장소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시기는 “매년”(14:22, 15:20)과 “매 삼 년 끝”(14:28) 또는 “셋째 해”(26:12)이고, 장소는 성소(聖所)를 일컫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12:5,11,21, 14:23-24, 15:20, 16:2,6,11, 26:2)이며, 목적은 “네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함께 먹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12:7, 14:26, 15:20). 이스라엘은 제정일치(祭政一致) 곧 신정(神政)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의 613개 계명들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것이었고 십일조는 당연한 백성의 의무였으며 일종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의무에 대한 규정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다소 다르게 설명된 경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성소(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언급된 대로 십일조를 바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가족들, 부리는 종들, 거류하는 객과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매 삼 년 끝”(14:28) 또는 “셋째 해”(26:12)에 바치는 십일조로써 “네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14:28-29).

유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대상 29:11). 하나님이 만드시고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소유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지기로 하여금 소산의 십분의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분을 인정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성전, 회당, 교회, 제사장, 목사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선교사역 또는 긍휼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쓸 수 없다는 믿음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성경밖에서도 고대 때로부터 내려온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이 인신 제물을 바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왕하 3:27, 렘 32:35).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헌 되어 성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대신에 장자들은 아들의 대속(pidyon ha-ben)을 위해서 출생한지 31일이 되는 날에 성소에 은 다섯 세겔의 속전(贖錢)을 지불하였습니다(민 18:15-16).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6-7, 대상 29:9, 사 1:11-13).

3.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16-19).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키고(16절)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충실히 섬기면(17절) 그 결과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18절).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아들들’(Bar Mitzvoth)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8절). 셋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9절). 넷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9절). 왜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대(代)를 이어 전승시키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대손손 이어가려는 가문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25절을 보면, ‘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하는가’라는 문답이 나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행하기 싫은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돌이였을 때 우리에게 안식할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노예였을 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분과 약속한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생

활을 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9절을 보면, ‘왜 우리가 모든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Berachot)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들,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먼 다른 나라로 끌고 갔던 민족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보복하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둡고 수치스러웠던 과거사를 들춰내서 대대손손 가르치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가 있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셨고, 예전에는 눈물로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급히 먹어야 했고, 사막에서 방황하며 천막에 거주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예물로써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신(神)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25장 38절과 민수기 15장 41절을 비롯한 수많은 성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신앙고백을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출 19:4),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시 66:6, 78:13, 106:9), 떠돌이였던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인 토라(Torah)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식이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해온 믿음이자, 정신이며, 유산입니다. 그 속에 통일된 의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문화와 관습이 있고,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바치는 십일조는 의무를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자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대(代)를 이어 믿음의 전통을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봅시다.
2.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시민권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거나 감당할 만한 적절한 의무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봅시다.
3. 유대인들의 대를 잇는 신앙고백을 보면서 느낌 점이 있었다면 서로 말해봅시다.

제8과 이스라엘의 홍망성쇠가 달린 율법(1)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7장 1-26절

찬송: 543장(통342장), 545장(통344장)

간직할 말씀 :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들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신 27:10).

주제 :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 앞에서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설교군(群)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로써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생활을 상기시킨 부분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로써 계명들이 담긴 부분이며,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로써 두 번째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복 받는 민족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홍망성쇠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자 유대교인들의 확신입니다. 2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규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적은 돌비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바칠 돌단을 에발산에 쌓으라는 것입니다(1-10절). 둘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의 순종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11-26절). 이 두 가지 의식은 고대사회에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구두(口頭)나 상징적 행동을 통해 언약의 내용을 확인했던 비준양식과 흡사하며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첫째, 율법을 적은 돌비는 율법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고, 복과 저주의 선포는 청각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결국 이 두 가지 의식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문자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느냐 마느냐가 이스라엘의 홍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먹과 돌비에, 복음을 영(靈)과 심비(心碑)에 비교함으로써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신명기 27:1-10).

신명기 27장 2-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에서 석회를 바른 큰 돌들 위에 기록한 율법이 쇠 연장으로 새긴 글씨인지, 먹으로 쓴 글씨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절에서 “돌단을

썻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지시가 돌단에 쓰일 돌에만 국한된 것인지, 돌비석에도 적용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는 돌단에 쓰일 돌은 물론이요 비석에 쓰일 돌에도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원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지시로 읽힙니다. 만일 원석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만 맞다면, 돌비에 기록한 율법은 쇠 연장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왜 돌비에 석회를 발라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석회를 발라 먹으로 쓴 글자는 쇠 연장으로 새긴 글자보다 수명은 짧지만, 글자가 희미해지면 그 위에 석회를 덧바르고 먹으로 글자를 다시 쓰면 되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쇠 연장으로 가공한 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석 그대로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함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산 돌’(living stone)이란 인위적으로 가공한 돌이 아니라 순수하고 본래적인 자연석을 말합니다. 그 자연석이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펼치는 운동을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 또는 신약성경교회(New Testament Christianity) 회복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3,9,10절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백성의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한 비결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환원운동 때문이었습니다.

2.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신명기 27:11-15).

하나님은 가공하거나 주조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본래적이고 순수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성전)에 사용된 모든 기물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 때 했듯이 부어 만들거나 쇠 연장으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구리의 덩어리들을 두들겨서 모양을 내거나 펼쳐서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성막 기물이 지성소 서쪽 끝에 안치된 법궤 뚜껑(속죄소)에 있었던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던”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출 37:7-9)과 “순금 한 달란

트”를 쳐서 만든 일곱 개의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대(menorah)일 것입니다. 그 모양(아몬드 나무 형상)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출애굽기 25장 31-40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실린 성막기구제작 요령의 핵심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출 25:40, 26:30)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한 비결은 신약성경에 보인 양식대로, 그리스도께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대로 그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환원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carved image)을 만들지 말라”(신 5:8, 출 20:4)고 하였습니다. “새긴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pesel)입니다. ‘페셀’은 피조물을 본떠서 새기거나(부조) 깎아서(조각)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에 형상을 새기거나 깎으려면 쇠 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어 만든”(molten)은 히브리어로 ‘마세카’(masecha)입니다. ‘마세카’는 가면(mask)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면은 참 모습이 아닙니다. 참은 가면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우상이라는 보이는 가면이 아니라, 가면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남유다왕국이 북이스라엘왕국의 금송아지를 끊임없이 문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서쪽에 안치된 법궐뚜껑은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등상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일 년에 단 하루 곧 보통 우리 민족의 추석 5일 전에 닿는 대속죄일(Yom Kippur)에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궐은 두터운 성막과 지성소 커튼과 2미터 25센티미터 높이의 세마포 울타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왕국에는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벤엘 두 성소에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금을 부어 만든 송아지(eigel masecha, 출 32:4,8; 신 9:12,16)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왕상 12:28). 200여년의 북이스라엘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들 황금송아지가 제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예후 때조차도 황금송아지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왕국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황금송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요 거짓이며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위적인 제도와 의식과 교리와 웅장한 예배당이라는 가면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가면 아래의 참을 보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과 구리의 덩어리들을 두들겨서 모양을 내거나 펼쳐서 만든 성막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메질을 되풀이해서 얇게 늘여가며 형태를 잡아가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기물은 휘거나 잘 깨지지 않고 비교적 변색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쓸수록 윤기가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고 사용을 오래하면 할수록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세척도 간단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틀 안에 붓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물은 변색이 심하고 얼룩이 생기며 녹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니다. 게다가 주물은 기공(氣孔)이 생기고 성질과 강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3.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명기 27:16-26).

신명기 27장 11-14절, “모세가 그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느” 의식(儀式)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했을 때에 받을 축복과 그 반대의 경우에 받을 저주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쯤인 고지대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남쪽 산이 그리심산(해발 881m)이고 북쪽 산이 에발산(해발 940m)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세겜(해발 550m)이란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1-13절은 이 두 산 곧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여섯 지파씩 나눠서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심산에 야곱의 정식 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르우벤과 스불론 지파는 제외)이 서고, 에발산에는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자손들과 르우벤과 스불론 지파가 섰습니다. 르우벤이 저주의 산에 서게 된 것은 부친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창 35:22, 49:4),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그들이 각각 저주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그 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한쪽은 축복의 산이 되고 다른 쪽은 저주의 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의식이 치러진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인 가나안땅에 입성한 직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이 축복받을 자들의 산으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이 저주받을 자들의 산으로 지정된 것은 훗날 남쪽 유다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왕국으로 나뉜진 상황이 예견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추정해 볼 뿐입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은 지금의 세겜성이 위치한 골짜기에 서서 한목소리로 15-26절을 차례대로 외쳤을 것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뉘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한목소리로 “아멘”으로 차례대로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신명기는 27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죄 연장으로

가공한 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석 그대로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함 그대로라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이 영(靈)으로 심비(心碑)에 쓴 복음이란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산 돌’(living stone)이란 인위적으로 가공한 돌이 아니라 순수하고 본래적인 자연석을 말합니다. 그 돌이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펼치는 운동을 환원운동 또는 신약성경교회회복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동을 펼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로써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2천년의 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실만한 인위적인 전통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2.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제9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린 율법(2)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8장 1-68절

찬송: 204장(통379장), 200장(통235장)

간직할 말씀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주제 :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말씀 앞에서

거듭된 말이지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자 유대교인들의 확신입니다. 신명기 28장 1-14절은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면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68절까지는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14절) 받게 될 복들이 10여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1절), 둘째는 모든 국가들의 총수(總帥)가 되며(13절), 셋째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복을 받고(3절), 넷째는 자녀들과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사업에 복을 받으며(4,8,11절), 다섯째는 의식주에 복을 받고(5절), 여섯째는 집안에서든 집밖에서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을 받으며(6절), 일곱째는 개인 간의 싸움이든 기업 간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싸움에서 승리하고(7절), 여덟째는 야훼 하나님의 성민(聖民)이 되며(9절), 아홉째는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강성한 나라가 되고(10절), 열째는 땅이 비옥케 되어 부유케 되며 외국정부들이나 국제기구들에게 자금을 대여(貸與)하는 나라가 된다(11-12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들이 10여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저주를 받고(16절), 둘째는 의식주에 저주를 받으며(17절), 셋째는 자녀들과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사업에 저주를 받고(18절), 넷째는 집안에서든 집밖에서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저주를 받으며(19절), 다섯째는 손대는 일마다 망하고 파멸하며(20절), 여섯째는 온갖 종류의 재앙과 악질과 염병과 정신병이 닥쳐 진멸하고(21-22, 27-28절), 일곱째는 국토가 황폐하여져 사막이 되며(23-24절), 여덟째는 개인 간의 싸움이든 기업 간의 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싸움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여 그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되고(25절), 아홉째는 머리가 되지 못하며 꼬리가 되어 외국정부들이나 국제기구들에게 차관(借款)을 받는 비참한 나라가 되며(44절), 열째는 주변국들에게 점령당하여 압제와 노락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외국을 떠돌며 온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다(29-43, 45-68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 28:1-14).

신명기 28장 1-14절에는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14절) 받게 될 복들이 10여 가지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잘 지켜 순종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들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따라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때 또는 유배 때 밟았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아직 다 성취되지 못한 ‘그 희망’(Ha-Tikvah)이 지금은 수십 배로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고대하는 바 모쉬아크(재림모세, 메시아)가 오신다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밟았던 모든 나라와 땅들이 다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그 희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히 문자적으로 계명들과 규례들을 실천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잠자코 있으라. 모쉬아크가 오고 계신다(Keep Calm. Moshiach Is Coming!)”고 말합니다. 그 같은 노력과 대대손손 이어져 온 가문전도가 가나안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이후, 비록 4천년 가량의 역사 중에 대략 3천년을 노예와 떠돌이로 살기는 했지만, 그 언약의 땅에 1948년 5월 14일 기필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바벨론유배이후의 이야기들이 적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성경은 패망한 유대인들에게 재림모세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Olam Ha-Ba)에 대한 ‘그 희망’(Ha-Tikvah)을 끊임없이 심어주었고,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토라를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屬州, provincia)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유대민족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율법과 규례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잘 지켜 순종하고 그 전통을 대대손손 이어온 가문전도(신앙교육)는 전 세계를 통틀어 1천4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경제의 본산인 미국의 금융자본과 언론계, 학계를 장악하게 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을 다섯 사람이나 배출하게 하였으며, 미국 상원의원의 52퍼센트, 핵무기조정자의 60퍼센트, 대학교수

의 30퍼센트,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20-30퍼센트를 배출케 하였고, 스피노자, 멘델스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키신저, 올브라이트, 조지 소로스, 라캉, 데리다 같은 인물들을 배출케 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2002년 핀란드 헬싱키대학이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IQ를 조사해 본 결과, 이스라엘의 IQ는 95(26위), 미국은 98(19위)인 반면, 한국은 106(2위)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IQ가 높은 나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9백만 명 가운데 유대인이 7백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는 핵을 가진 강한 나라입니다. 성공여부가 IQ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극복해온 고난의 세월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대대손손 이어지는 가문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성공의 배경에 가문전도(신앙교육)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신 28:15-44).

신명기 28장 15-44절에는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들이 10여 가지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잘 지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들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그 희망을 가시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나라가 다윗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왕국은 북과 남으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왕국은 200여년 만인 주전 722년에 신흥 아시리아제국에 멸망하였으며 완전히 흩어져버렸습니다. 백성을 살아남게 할 만한 탄탄한 야훼신앙도 구심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왕국은 340여년 만인 주전 586년에 신흥 바벨론제국에 멸망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운지 820여년 만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원점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바뀐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예언자들의 진단의 근거가 신명기 28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68절에 예고된 대로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들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왕국은 역사의 뒤편길로 영원히 사라졌고, 남유다왕국은 주전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였으나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모여 하루 세 차례씩 기도문을 낭송함으로써 살아남았고, 주전 538년, 주전 457년, 주전 432년 세 차례에 걸쳐 유배지에서 백성의 일부가 고토에 돌아와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영토는 제국들 곧 바빌로니아(주전 605년부터), 페르시아(주전 539년부터), 헬라(주전 332년부터), 로마(주전 63년부터)의 속주(屬州)로 백성은 속주민(식민지 백성)으로 주후 70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주전 168년에서 주전 141년까지 이어진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전 141년부터 주전 63년까지 하스몬 집안이 독립 이스라엘 왕국을 짧게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헬라와 싸워 쟁취한 독립의 숙취에서 벗어나

지 못한 유대인 열심당원(독립투사)들이 주후 66-70년에 유대-로마전쟁을 일으켰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에게 무참히 진압 당함으로써 6백여 년간 점령국들의 속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곳에서의 추방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실패가 준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습니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유대-로마전쟁이 주후 132-135년에 다시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58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고, 생포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노예로 혈값에 팔렸으며, 나머지는 이집트에 강제로 이주하였습니다. 로마황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주피터신전을 세우고, 도시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로 바꿔 이방인 도시로 탈바꿈시켰으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내 출입과 접근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오직 일 년에 하루, 아브월 9일(Tisha B'Av, 7-8월경)에만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도록 방문을 허용 받았습니다. 이때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Judaea)라는 속주 이름을 '시리아-팔레스티나'(Palestina) 곧 팔레스타인으로 바꿨고, 유대인들의 종교행위와 절기축제와 성경을 사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 전쟁의 참패로 유대인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으며 1948년 5월 14일 건국 때까지 1878년간 모국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주후 395-638년 사이에 그리스도교 비잔틴이 지배하였고, 주후 638-1099년 사이에 사라센(Saracen,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주후 1099-1291년 사이에 십자군에, 주후 1250-1517년 사이에 이집트에, 주후 1517-1917년 사이에 오스만(Osman)제국에, 주후 1299-1922년 사이에 이집트에 각각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1917-1948년 사이에 영국의 위임통치(국제연맹)를 받던 중 주후 1948년 5월 14일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1878년 만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1천2백만 명 정도가 학살당하였습니다. 이 같은 저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아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었던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요한난 벤 자카이(Rabbi Yohanan Ben Zakkai)가 야브네(Yavne)에 세운 랍비학교와 그의 후계자들이 발전시킨 탈무드(Talmud)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3.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신 28:45-68).

신명기 28장 45-68절에는 야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게 될 저주 곧 주변국들에게 점령당하여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외국을

떠돌며 온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다(29-43, 45-68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힌 역사는 길어도 너무 깁니다. 주전 586년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배당한 때로부터 주후 1948년 건국 때까지, 주권을 잠시 회복했던 주전 164-64년까지 100년을 뺀 나머지 기간이 실상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434년간이나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고난을 딛고 살아남은 영웅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모세성경을 매년 한 차례씩 완독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매일 오전 오후 저녁에 모여 19개의 기도문(Berachot)을 반복해서 낭송하고, 야훼 하나님과 자기 민족과의 연관성을 지속시키는 모든 절기와 축제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충실히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뒤편 길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날 누리는 번영은 대대손손 이어온 가문전도와 야훼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대대손손 가르칩니다. 두 번 다시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여 맞본 그 처참한 저주를 다시는 맞보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인들은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신약과 복음의 예표로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실천하는 관행들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신구약성경 모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사랑(헤세드, 아가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성경의 큰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자기 민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모쉬아크(제2모세, 제2다윗)가 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만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신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예슈아)님을 그리스도(메시아)로 믿지 않을뿐더러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아예 ‘메시아’란 말조차 쓰지 않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모쉬아크’(Moshiach)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반드시 구약성경에서의 가르침과 문자적으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은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에서 잘못 이해한 병든 것과 불완전한 것, 모형과 그림자 대신에 건강한 것과 온전한 것, 실체와 참모습을 제시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시고”(히 7:18),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다”(히 10:9)는 뜻이 여기에 있고,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모세오경)이나 선지자(예언서들)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가나안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그 희망을 가시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나라가 다윗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왕국은 북과 남으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왕국은 200여년 만인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으며, 남유다왕국은 340여년 만인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운지 820여년 만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원점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바뀐을 뿐입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은 무자식 상태에서 처음 품었던 그 희망, 곧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그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절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깊은 흑암의 상태, 무질서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브라함의 희망이 430(혹은 645)년 만에 성취되었듯이, 유대인들의 희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신약성경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희망의 새 출발점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유대교는 민족종교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계명들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pistis)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인 반면,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emunah) 유일신 신앙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인들은 613개의 계명들(Mitzvoth)과 규례들(Gezairoth)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의 본뜻이라고 이해합니다(마 22:37-40).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봅시다.
2.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오랜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가문전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질병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봅시다.